

시끼보가 소재개발 전담부서를 신설

시끼보의 섬유사업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임원은 “시끼보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소재들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려면, 실 따로 텍스타일 따로가 아니라 모든 부서가 하나로 결집된 차별화가 필요하므로, 관할부서를 초월하여 모두 횡적으로 종합된 소재개발이 필요하다”고 주장하여, 2002년 12월에 본사의 상품개발부 안에 소재개발과를 신설하였다.

초대 소재개발과장은 “도야마(富山)” 공장과 분사(分社)하여 자(子)회사가 된 “시끼보 고지(高知)” 공장의 협력을 받아 활동을 시작하여 새로운 실을 34종 개발하였다. “잔털을 일부러 최대한 많이 만든 실” 또는 “꼬임을 극도로 적게 뽑은 실” 등과 같이 이제까지 생각할 수 없는 발상으로 신상품을 개발하였다. 그 궁극의 목표는 “여성용 고급 영 캐주얼(young casual)”이었으며, 2004년 추동용 소재로 발표하고자 시편(試編), 시가공(試加工)을 거듭하고 있었다.

시끼보는 소재개발과를 신설하고 모든 부서를 총동원하여 차별화제품을 개발하고 있다. 시방(試紡)건수는 2002년도에는 70건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47월의 4개월 동안에 70건이 넘어, 그 동안 3개월에서 반년에 1회 개최하였던 소재개발회의를 이제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 개최하되 적어도 월 1회 개최하게 되었다. 2003년 7월부터는 이 회의를 “도야마” 공장에서 개최하고 있는데, 본사에서는 각 사업부문의 영업직원을 비롯한 16명이 참석하고 있다.